

『難經』의 奇經八脈論에 대한 비판적 고찰

白上龍·朴贊國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關於“奇經八脈論”的新考

(以『黃帝內經』和『難經』爲中心)

白上龍·朴贊國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考『內經』之內容，『難經』中歸類於奇經八脈之“經脈群”，在其論述中諸經脈并未作詳細的敘述。而有關『難經』將此八脈與正經相對等，歸結爲奇經，并指出：正經具有主動的調節作用，是生命活動中起主導作用的經脈；而奇經從屬於正經的活動，將其剩餘的氣血貯藏起來，有如湖澤之功，故爲被動的，屬受支配的經脈等的論點在『內經』却無以考證。即『內經』將此八脈雖未像正經那樣視爲連結體內的藏府與體外的手足，有其特定循行規律的經脈，但究其實質，可以看出：八脈與正經相提并論，認爲對人體同樣起到重要的調節作用。『難經』中有關這一八脈的重要作用，使許多後世醫家遵其論點，視八脈如“湖澤”，在衆多的論述中均可考證。

如果說正經是以三陰三陽的原理分化成十二經脈，來交通生命的中樞，即體內的藏府之氣與體外的天地之氣，與天地之變化相應，完成植物性的生命活動，奇經八脈則是將分化的十二經脈重新按陰陽屬性統合，歸結於任脈與督脈，以此鞏固生物體的整體性。就是說：奇經八脈是將三陰三陽之氣融化成元氣，主動地克服天地之變化，形成獨立的生物體的動物性本質。故人體依靠正經的分化呼應天地間流行的三陰三陽之氣，以掌管生命活動中氣之出入；奇經便對立於天地，構成獨立的“自我”體系，以自身的元氣爲基礎，維持并貫穿生命活動的始終。換言之，督脈與任脈在人體如同“天地”；衝脈與帶脈在人體如同陽中之陰的“水”和陰中之陽的“火”；陰維脈與陽維脈在人體如同“江”和與江相連的“運河”；陽蹻脈與陰蹻脈在人體如同“雲”和“雨”。奇經八脈可以說比起正經更爲活躍地參與生命活動，發揮其整體性。

關鍵詞：『難經』，奇經八脈，三陰三陽，水，火

1. 緒 論

奇經八脈은 十二正經과 더불어 한의학 經絡

學說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의학뿐만 아니라 道家·武家 등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奇經八脈이라는 공식명칭은 『難經』 27難과

28難에서 처음 보이는데, 十二正經과 흐르는 계통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붙이고 있다. 『黃帝內經』¹⁾에도 『難經』에서 奇經八脈이라고 정의한 8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이들을 十二正經처럼 한 계통으로 묶어 논하고 있지는 않다. 『難經』 이후 역대 醫家들은 『難經』의 奇經八脈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內經』과 『難經』에서 언급한 奇經八脈에 대한 논술들을 정리하고 보충하였다. 중국 明代 李時珍은 의학과 도가에서 논하고 있는 奇經八脈에 대한 내용들을 수집하고 체계있게 정리한 『奇經八脈考』를 저술하였다. 『奇經八脈考』는 奇經八脈의 발전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저술로, 奇經八脈 이론의 精華라고 칭송받고 있다²⁾. 그러나 『奇經八脈考』의 奇經八脈에 대한 정의도 『難經』의 奇經八脈說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술하고 있을 뿐, 『難經』의 奇經八脈 정의를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難經』의 奇經八脈에 대한 정의를 분석하여 論駁해 보고, 『內經』과 역대 醫家들, 道家의 奇經八脈에 대한 논술들을 토대로, 『難經』에서 논변하고 있는 奇經八脈 정의에 대한 誤謬에 대해 지적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奇經八脈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 재고해보고자 한다.

11. 本 論

1. 內經과 難經의 奇經八脈論

『內經』에서 奇經八脈에 속한 經脈들에 대하

여 언급하고 있는 篇들은, 『素問』에서는 「上古天真論」, 「骨空論」, 「舉痛論」, 「痿論」, 「繆刺論」, 「刺腰痛論」, 「氣血論」, 「氣府論」 등이며, 『靈樞』에서는 「本輸」, 「經脈」, 「經別」, 「憂患無言」, 「營氣」, 「逆順肥瘦」, 「癲狂」, 「脈度」, 「寒熱病」, 「大惑論」, 「海論」, 「衝氣」, 「動脈」, 「熱病」, 「五音五味」, 「癰疽」, 「邪客」 등 25篇餘에 달한다. 그러나 十二正經에 대한 기술처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논술은 보이지 않는다. 『難經』에서는 23難·26難·27難·28難·29難 등 5難에 걸쳐 奇經八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難經』에서 奇經八脈이라는 하나의 群으로 묶은 經脈들에 대하여, 먼저 『內經』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難經』에서 어떠한 형태로 정립되었는지 알아보자.

1) 內經의 奇經八脈에 대한 論述

『內經』에서는 『難經』처럼 任脈·督脈·陽維脈·陰維脈·陽蹻脈·陰蹻脈·陽維脈·陰維脈 등을 奇經八脈이라고 이름하는 하나의 계통적인 經脈群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는 기술상 『難經』의 구분을 따라 奇經八脈을 陰陽의 相配에 따라 任脈과 督脈, 陽維脈과 陰維脈, 陽蹻脈과 陰蹻脈, 그리고 衝脈과 帶脈을 한 단위로 묶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任脈과 督脈

상기의 八脈 중 十二正經과 공유하지 않는 자체의 經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任脈과 督脈이다. 『素問·氣府論』에서는 督脈의 脈氣와 任脈의 脈氣가 湧出하는 자체의 經穴이 각각 28개씩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衝脈의 脈氣가 湧出하는 經穴이 22개, 陰蹻脈과 陽蹻脈의 脈氣가 湧出하는 자체의 經穴이 각각 1개씩 있다고 하지만 이는 후세의 논술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1) 『素問』과 『靈樞』를 말하며, 이하는 『內經』으로 간칭한다.

2) 李東鎬·朴贊國, 奇經八脈 理論의 形成과 發展에 관한 醫史學的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碩士學位論文, 1997, p.60.

3)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p. 206~207.

任脈과 督脈의 循行經路에 대해서는 『素問·骨空論』에서 논하고 있는 것이 자세하다.

“任脈者，起於中極之下，以上毛際，循腹裏，上關元，至咽喉，上頤循面入目。……督脈者，起於少腹，以下骨中央，女子入繫廷孔，其孔溺孔之端也，其絡循陰器，合纂間，繞纂後，別繞臀，至少陰與巨陽，中絡者，合少陰，上股內後廉，貫脊屬腎，與太陽起於目內眦，上額交巔，上入絡腦，還出別下項，循肩膊內，俠脊抵腰中，入循脊絡腎。其男子循莖下至纂，與女子等。⁴⁾ 其少腹直上者，貫齊中央，上貫心，入喉上頤，環脣上繫兩目之中中央。”⁵⁾

『內經』에서는 任脈과 督脈이 모두 少腹에서 發源한다고 하여 발원처가 같다고 하고⁶⁾ 있으며, 그 행로는 任脈은 신체 前面인 腹部쪽에서 눈에 이르는 부분으로 보고, 督脈은 會陰部를 끼고 둔 다음 背部쪽에서 頭部에 올라 눈의 안구석에서 이르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 또 十二正經 중에는 太陽經과 少陰經, 五藏 중에는 心과 腎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瀉精之處인 陰器를 감싸 흐르고 出神之處인 頭目⁷⁾을 맺는다고 하여, 생명의 근원인 精과 神의 활동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循行路線을 통해 보여주

고 있다. 즉 任脈과 督脈은 인체 身形의 中心軸인 척추를 사이에 두고 前部인 腹部와 後部인 背部를 관통하는 經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任督脈은 『靈樞·脈度』에서 全身의 經脈 長短을 정하여 經脈의 총 길이를 정할 때 十二正經, 蹻脈과 더불어 合算된다⁸⁾.

任脈의 기능에 대해서는 『素問·上古天真論』의 사람의 年齡에 따른 신체 생리변화에 대한 기술과 『靈樞·五音五味』의 衝脈과 상응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에서 상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비하여, 督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논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병이 들었을 때 발현하는 病證에 대한 논술에서 단편적으로 보이고 있을 뿐이다.

“女子，……二七而天癸至，任脈通，太衝脈盛，月事以時下，故有子，……七七，任脈虛，太衝脈衰少，天癸竭，地道不通，故形壞而無子也。”⁹⁾ “衝脈任脈，皆起於胞中，上循背裏，爲經絡之海。其浮而外者，循腹右[各字的 오기인 것 같음]上，……別而絡脣口，血氣盛則充膚熱肉，血獨盛則澹滲皮膚，生毫毛。今婦人之生，有餘於氣，不足於血，以其數脫血也。衝任之脈，不榮口脣，故鬚不生焉。黃帝曰：士人有傷於陰，陰氣絕而不起，陰不用，然其鬚不去，其故何也。宦者獨去，何也。……岐伯，曰宦者去其宗筋，傷其衝脈，血瀉不復，皮膚內結，脣口不榮，故鬚不生。黃帝，曰其有天宦者，未嘗被傷，不脫於血，然其鬚不生，其故何也。岐伯，曰此天地所不足也，其任衝不盛，宗筋不成，有氣無血，脣口不榮，故鬚不生。”¹⁰⁾

4) 이하의 문장은 마땅히 앞의 督脈에 대한 설명 앞 즉 任脈의 노선 앞으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니, 착간으로 보인다. 任脈이 복부를 관주하고 督脈이 배부를 관주하는 것으로 任督脈 노선의 기준을 정할 때, 任脈의 노선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5)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09.

6) 任脈의 발원처인 中極은 臍下 4寸에 위치하니, 少腹의 아랫쪽이다. 督脈은 뚜렷하게 부위를 정하지 않고 少腹이라고만 하였는데, 역대 醫家들은 이를 같은 부위로 논하고 있다. 『古今醫統大全』 卷六에서 “任與督脈，爲人身陰陽之綱領，一源而二歧，猶太極而生兩儀也。督則由會陰而行背，任則由會陰而行腹。”

7) 洪元植 精校, 上揭書, p.57. “頭者精明之府，頭傾視深，精神將奪矣。”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p.342. “目者，五藏六府之精也，營衛魂魄之所常營也，神氣之所生也，故神勞則魂魄散，志意亂，是故瞳子黑眼法於陰，白眼赤脈法於陽也。故陰陽合傳而精明也。目者，心使也，心者，神之舍也。”

8)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15. “手之六陽，從手至頭，長五尺，五六三丈。手之六陰，從手至胸中，三尺五寸，三六一丈八尺，五六三尺，合二丈一尺。足之六陽，從足上至頭，八尺，六八四丈八尺。足之六陰，從足至胸中，六尺五寸，六六三丈六尺，五六三尺，合三丈九尺。蹻脈從足至目，七尺五寸，二七一丈四尺，二五一尺，合一丈五尺。督脈任脈，各四尺五寸，二四八尺，二五一尺，合九尺。凡都合一十六丈二尺，此氣之大經隧也。”

9)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1.

任脈과 衝脈은 서로 순행경로나 기능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相互 호응하여 작용한다. 『上古天真論』에서 논하고 있는 것처럼 任脈은 天地의 陰氣[天癸]가 사람에게 이어질 때 지나가는 門戶와 같은 것으로, 이 任脈이 굳건하면 太衝脈[衝脈]도 동시에 성해져, 天地 陰氣의 用事[씨를 배고 기르는 여자의 생식작용]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주관하고 있다. 또 血氣를 衝脈과 상응하여 보존하고 지켜냄으로써 皮膚와 毫毛를 영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고 있다. 『素問·骨空論』과 『靈樞·經脈』에서는 任脈과 督脈의 病變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任脈爲病，男子內結七疝，女子帶下瘦聚。……督脈爲病，脊強反折。”¹¹⁾，“任脈之別，名曰尾翳，……實則腹皮痛，虛則癢癢，……督脈之別，名曰長強，……實則脊強，虛則頭重”¹²⁾

任脈의 病變은 남자는 下腹部와 陰器에서 주로 발생하는 疝證이 나타나고 여자는 자궁의 이상으로 帶下나 下腹部 積聚 등이 일어나며, 督脈의 病變은 척추의 硬直과 不利, 頭部의 荷重感으로 나타난다. 즉 任脈과 督脈은 위치적으로는 下腹部와 脊椎, 기능적으로는 月經 등 生殖機能과 脊椎와 頭部로 대변되는 身形 中樞의 屈伸, 動搖, 支持 등을 主宰한다고 할 수 있다.

『內經』에서는 任脈과 督脈을, 위치적으로는 會陰部와 양 눈을 頂點으로 하여 脊椎를 끼는 前後의 腹部와 背部를 上下로 가르다고 하였다. 正經 중에는 太陽經과 少陰經, 五藏 중에는 腎과 心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正經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經脈의 本포(經脈의 長短을 산출할 때 포함함) 부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적으로는 하복부에 있는 精氣가 출입하는 生殖器와 神氣가

출입하는 頭目을 맺어줌으로써 精과 神의 활동을 도우며, 척추의 운동과 생식기의 활동을 관장한다고 하고 있다.

(2) 衝脈과 帶脈

衝脈과 帶脈은 奇經八脈 중 陰陽으로 相應하는 짝이 없는 經脈이다. 『內經』에서 衝脈은 任脈과 더불어 여러 편에서 같이 나오며 그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지만, 帶脈은 언급하는 篇이 3篇에 그칠 뿐만 아니라 실체를 알 수 있는 설명도 거의 없다. 『素問·氣府論』에서는 衝脈의 脈氣가 湧出하는 經穴이 22개나 있다¹³⁾고 하고 있지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衝脈의 經路에 대한 설명은 『靈樞·五音五味』와 『逆順肥瘦』, 『素問·舉痛論』과 『骨空論』 등에서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 그 중 『骨空論』과 『逆順肥瘦』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衝脈者，起於氣街，併少陰之經，俠臍上行，至胸中而散”¹⁴⁾，“夫衝脈者，……其上者，出于顛顙滲諸陽，灌諸精[『甲乙經』에는 陰字로 되어 있음]. 其下者，注少陰之大絡，出於氣街，循陰股內廉，入臍中，伏行肝骨內，下至內踝之後屬而別。其下者，並於少陰之經，滲三陰，其前者，伏行出跗屬，下循跗，入大指間，滲諸絡而溫肌肉。”¹⁵⁾，“衝脈任脈，皆起於胞中，上循背裏，爲經絡之海。其浮而外者，循腹右[各字의 誤記인 것 같음]上，……別而絡唇口。”¹⁶⁾

衝脈의 本포경로는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대략 살펴보면 하복부의 氣街 혹은 胞中에서 일어나 위로는 任脈과 더불어 입술과 입에 닿고, 목구멍 즉 顛顙에서 밖으로 外出하며, 아래로는 少陰經과 더불어 순행하여 발가락에 이르고 있다. 그 순행하는 과정 중에 三

10) 洪元植 精校, 上揭書, pp282~283.

11)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09.

12) 洪元植 精校, 上揭書, p.85.

13)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07.

14)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09.

15)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89.

16) 洪元植 精校, 上揭書, pp282~283.

陽經과 三陰經으로 滲灌하여 적셔주고 溫煦시키는 滋養作用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衝脈의 기능 또한 任脈이나 少陰經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素問·上古天真論』과 『靈樞·五音五味』에서는 任脈과 상호 호응하여 血氣를 조절하는 것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이를 잠시 살펴보면 衝脈은 任脈의 성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任脈이 통하여 天癸를 받아들이면, 衝脈도 隆盛해져 生殖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며, 반대로 任脈이 空虛해지면 衝脈도 쇠약해져 생식작용을 유지할 수 없다. 또 입 주변에서 나는 수염들은 모두 衝脈의 血氣를 받아 자라기 때문에 衝脈이 손상을 받으면 수염이 없어진다고 하여, 인체의 血氣 盛衰에 衝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靈樞·逆順肥瘦』에서 논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夫衝脈者，五藏六府之海也，五藏六府皆稟焉。……”¹⁷⁾

그러므로 衝脈은 모든 經脈과 五藏六府에서 소요되는 血氣의 寶庫로서 가정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帶脈의 순행경로에 대한 것은 『內經』에 특별한 설명이 없고, 『靈樞·經別』과 「癲狂」 등에서 약간의 단서가 보일 뿐이다.

“足少陰之正，至膈中，別走太陽，而合上至腎，當十四佳頁，出屬帶脈，……”¹⁸⁾，“脈癲疾者，暴仆，四肢之脈，皆脹而縱，……灸帶脈於腰相去三寸諸分肉本輸。”¹⁹⁾

척추 중 14추는 督脈의 命門穴이 위치하는 곳이며, 足少陽經의 帶脈穴은 肋骨 下端 京門穴에서 비스듬히 앞쪽으로 내려와 위치한다. 이로 帶脈의 위치를 추측하면, 命門穴 윗쪽 足少陽經의 帶脈穴 부근의 허리 부위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帶脈의 기능에 대해서는 『素問·痿

論』에서 陽明經과 호응시켜 논하고 있다.

“陽明者，五藏六府之海，主閏宗筋，宗筋主束骨而利機關也。衝脈者，經脈之海也，主滲灌谿谷，與陽明合於宗筋。陰陽總宗筋之會，會於氣街，而陽明爲之長，皆屬於帶脈，而絡於督脈。故陽明虛則宗筋縱，帶脈不引，故足痿不用也。”²⁰⁾

帶脈은 陰陽의 모든 經脈을 둘러 묶고 끌어당겨서 결속을 다지게 하는 經脈이며, 陽明經과 宗筋에 의해 유지되는 足跟의 상태에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內經』에서는 衝脈은 體幹에서는 任脈이나 少陰經과 함께 腹部에서 縱行으로 분포하고, 足部에서는 少陰經을 따라 분포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帶脈은 뚜렷한 분포부위를 논하지 않았지만, 허리의 命門穴 윗쪽이나 足少陽經의 帶脈穴이 있는 季肋部 주변에서 띠처럼 橫行하는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衝脈은 上下로 분포하여 上下로 生殖器와 口脣部位, 藏府, 經絡 등을 血氣로써 滲灌, 扶養한다고 하였으며, 帶脈은 陰陽의 모든 經脈을 둘러 묶어서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經脈으로 보고 있다. 즉 衝脈은 포용하는 특성을 帶脈은 단속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陰維脈과 陽維脈

陰維脈과 陽維脈에 대한 것은 『素問·刺腰痛論』에서 약간 언급하고 있을 뿐 순행경로나 기능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陽維之脈，令人腰痛，痛上佛然腫，刺陽維之脈，脈與太陽合腠下間，去地一尺所。”²¹⁾……飛陽之脈令人腰痛，痛上拂拂然，甚則悲以恐，刺飛陽之脈，在內踝上五寸²²⁾，少陰之前，與陰維之會。”²³⁾

陰維脈과 陽維脈은 모두 足部를 순행하며,

17)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89.

18) 洪元植 精校, 上揭書, p.97.

19)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34.

20)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66.

21) 張介賓은 承山穴이라고 하였다.

22) 少陰經의 築賓穴 앞쪽을 말한다.

23)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53.

陰維脈은 少陰經과 陽維脈은 太陽經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腰痛 등에 取穴하는 것으로 보아 腰部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內經』에서는 陰維脈과 陽維脈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실체를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陰蹻脈과 陽蹻脈

蹻脈은 『靈樞·脈度』에서 全身의 經脈 장단을 정하는데 合算하는 經脈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十二正經이나 任脈, 督脈과 함께 經氣가 크게 흐르는 큰 經隧 중 하나에 속한다고 하였다²⁴⁾. 순행경로에 대하여 『靈樞·脈度』와 『寒熱病』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黃帝, 曰蹻脈安起安止, 何氣榮水[『甲乙經』에는 也字로 되어 있음]. 岐伯, 答曰蹻脈者, 少陰之別, 起於然骨之後, 上內踝之上, 直上循陰股, 入陰, 上循胸裏, 入缺盆, 上出人迎之前, 入頰, 屬目內眥, 合於太陽. 陽蹻而上行, 氣并相還, 則爲濡目, 氣不榮, 則目不合. …… 黃帝, 曰蹻脈有陰陽, 何脈當其數. 岐伯, 曰男子數其陽, 女子數其陰, 當數者, 爲經, 其不當數者, 爲絡也.”²⁵⁾, “其足太陽有痛項入於腦者, 正屬目本, 名曰眼系, 頭目苦痛, 取之在項中兩筋間. 入腦乃別, 陰蹻陽蹻, 陰陽相交, 陽入陰, 陰出陽, 交於目銳眥.”²⁶⁾

蹻脈은 陽蹻와 陰蹻가 있지만, 그 순행경로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少陰經의 別絡으로서 然骨穴의 뒤에서 일어나 안쪽 복사뼈 윗쪽을 따라 사타구니를 지나서

胸部 안쪽을 순행하여 缺盆에 이른 다음 눈에 이르러 太陽經과 합해지는 경로는, 현재 일반적으로 陰蹻脈의 순행경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蹻脈의 순행경로에 뒷목과 腦, 눈의 內眥와 外眥가 들어 있으며, 뇌 속에서 左右經脈이 서로 교차함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陽蹻脈에 대한 순행경로는 이를 통해서 정확히 정할 수 없다. 단지, 陰蹻脈과 陽蹻脈은 十二正經 중 太陽經과 少陰經을 잇는 노선 속에서 정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蹻脈이 다른 經脈과 명확히 구별되는 특이한 점은 男女의 구별 즉 陰陽에 따라 經 또는 絡으로 자기의 整體를 바꿈으로써 남녀의 性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陽性인 남자에서는 陽蹻가 주축이 되는 經으로서 작용하고, 陰性인 여자에서는 陰蹻가 주축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논함으로써, 蹻脈의 역할이 經氣의 통로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확실한 경로에 대한 설명과 달리 기능에 대해서는 『靈樞·寒熱病』과 『大惑論』에서 蹻脈과 눈의 開闔상관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其足太陽有痛項入於腦者, 正屬目本, 名曰眼系, 頭目苦痛, 取之在項中兩筋間. 入腦乃別, 陰蹻陽蹻, 陰陽相交, 陽入陰, 陰出陽, 交於目銳眥, 陽氣盛則瞋目, 陰氣盛則瞑目.”²⁷⁾, “黃帝, 曰病而不得臥者, 何氣使然. 岐伯, 曰衛氣不得入於陰, 常留於陽, 留於陽則陽氣滿, 陽氣滿則陽蹻盛, 不得入於陰則陰氣虛, 故目不瞑矣. 黃帝, 曰病目而不得視者, 何氣使然. 岐伯, 曰衛氣留於陰, 不得行於陽, 留於陰則陰氣盛, 陰氣盛則陰蹻滿, 不得入於陽則陽氣虛, 故目閉也.”²⁸⁾

눈은 開闔은 昏睡와 覺醒·意識의 활동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는 藏府와 經絡 사이에 이루어지는 陰陽 二氣의 出入을 통해

24)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15. “手之六陽, 從手至頭, 長五尺, 五六三丈. 手之六陰, 從手至胸中, 三尺五寸, 三六一丈八尺, 五六三尺, 合二丈一尺. 足之六陽, 從足上至頭, 八尺, 六八四丈八尺. 足之六陰, 從足至胸中, 六尺五寸, 六六三丈六尺, 五六三尺, 合三丈九尺. 蹻脈從足至目, 七尺五寸, 二七一丈四尺, 二五一尺, 合一丈五尺. 督脈任脈, 各四尺五寸, 二四八尺, 二五一尺, 合九尺. 凡都合一十六丈二尺, 此氣之大經隧也.”

25)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15.

26)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30.

27)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30.

28) 洪元植 精校, 上揭書, pp.342~343.

일어나며, 蹻脈의 이러한 氣의 出入을 담당한다. 즉 눈을 뜨면 陽氣가 衛氣로서 三陽經으로 나와 돌면서 體表를 운행하게 되므로 의식이 돌아와서 精神的, 肉體的 활동을 고양시키며, 눈을 감으면 陽氣가 陰氣로 변하여 五藏으로 들어가 무의식 속에서도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을 영위하는데²⁹⁾, 이러한 生命之氣의 陰陽 出入을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蹻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蹻脈에 이상이 생기면 陰氣와 陽氣의 交叉가 이루어지지 않아 意識의 陰陽轉化에 혼란이 올 수 있을 것이다.

『內經』에서는 蹻脈의 순행경로가 少陰經·太陽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陰蹻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한데 비하여 陽蹻脈에 대해서는 간략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男女 陰陽에 따른 整體性의 차이를 논함으로써, 陰陽蹻脈의 성쇠가 性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藏府와 體表 經絡의 陰陽之氣 盛衰를 결정하는 內外 出入의 경로로서 蹻脈의 역할과 그에 따른 현상들을 논함으로써 蹻脈이 意識活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2) 難經의 奇經八脈에 대한 論述

『難經』 27難에서는 처음으로 奇經八脈이라는 용어를 쓰고, 奇經八脈의 개괄적인 특성과 여기에 속한 經脈들을 나열하고 있다.

“二十七難，曰脈有奇經八脈者，不拘於十二經。何謂也。然，有陽維，有陰維，有陽蹻，有陰蹻，有衝，有督，有任，有帶之脈，凡此八脈者，皆不拘於經，故曰奇經八脈也。…… 聖人圖說溝渠，通利水道，以備不然，天雨降下，溝渠溢滿，當此

29)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98. “衛氣者, 出其悍氣之慄疾, 而先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 而不休者也, 晝日行於陽, 夜行於陰, 常從足少陰之分間, 行於五臟六腑. 今厥氣客於五臟六腑, 則衛氣獨衛其外, 行於陽, 不得入於陰, 行於陽則陽氣盛, 陽氣盛則陽蹻陷, 不得入於陰, 陰虛, 故目不瞑.”

之時, 방(雨+滂)霈妄行, 聖人不能復圖也. 此絡脈滿溢, 諸經不能復拘也.”³⁰⁾

奇經은 陽維脈·陰維脈·陽蹻脈·陰蹻脈·衝脈·督脈·任脈·帶脈 등을 말하며, 이들은 正經과는 구별되는 經脈으로 보고, 『內經』에서 논하고 있는 十二正經 이외의 여러 經脈들 중, 이 8개만을 따로 묶고 그 기능을 관련시켜 奇經八脈이라는 經脈群으로 정의하고 있다.

(1) 奇經八脈의 循行路線

『難經』에서는 『內經』에서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八脈들의 순행노선에 대하여 28難에서 구체적이고 간명하게 논술하고 있다.

“督脈者, 起於下極之俞, 竝於脊裏, 上至風府, 人屬於腦. 任脈者, 起於中極之下, 以上毛際, 循腹裏, 上關元, 至咽喉. 衝脈者, 起於氣衝, 竝足陽明之經, 夾齊上行, 至胸中而散也. 帶脈者, 起於季脇, 廻身一周. 陽蹻脈者, 起於跟中, 循外踝上行, 入風池. 陰蹻脈者, 亦起於跟中, 循內踝上行, 至咽喉, 交貫衝脈. 陽維陰維者, 維絡於身, …… 故陽維起於諸陽會也, 陰維起於諸陰交也.”³¹⁾

督脈과 任脈은 신체를 前後로 양분하여 正中線을 따라 上下로 분포하며, 衝脈은 신체의 前部에서 足陽明經과 병행하는데 胸中에서 그치고 帶脈은 季脇部에서 몸을 橫으로 휘돈다고 하였다. 陽蹻脈과 陰蹻脈은 모두 足跟 中에서 일어나 목까지 이르며, 陽維脈과 陰維脈은 각기 陽經의 會處와 陰經의 交處에서 일어나 몸을 그물처럼 연락하는 經脈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인체 經脈의 長短을 논할 때 『內經』과 마찬가지로 正經과 함께 奇經八脈 중 任脈과 督脈·蹻脈을 합산하고 있으며³²⁾, 經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任脈과 督脈을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는다.

30)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pp.53~54.

31) 凌耀星 主編, 上揭書, p.55.

32) 凌耀星 主編, 上揭書, p.45.

『難經』에서는 『內經』과 달리 帶脈·陽蹻脈의 노선까지도 간명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陰維脈과 陽維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술은 없지만, “維絡於身, …… 陽維起於諸陽會也, 陰維起於諸陰交”이라고 하여 그 經脈의 起始點과 순행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正經과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衝脈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없으며, 衝脈에 대한 설명에서도 足陽明經과 관계만을 논하고 있을 뿐이다.

(2) 奇經八脈의 특성

『難經』에서는 任脈, 督脈, 衝脈, 帶脈, 陰蹻脈, 陽蹻脈, 陰維脈, 陽維脈 등을 奇經八脈이라는 하나의 맥군의 묶음은 이유에 대하여 28難에서 그 正經과 구별되는 기능을 통해 정의하고 있다.

“其奇經八脈者, 既不拘於十二經, …… 比於聖人圖說溝渠, 溝渠滿溢, 流於深湖, 故聖人不能拘通也. 而人脈隆盛, 人於八脈而不環周, 故十二經亦不能拘之. 其受邪氣, 蓄則腫熱, 砭射之也.”³³⁾

奇經은 十二正經과 달리 如環無端하게 순환하는 구조가 아니라, 入口만 있고 出口가 없어 氣血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내보낼 수 없다는 면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正經이 서로 고리처럼 이어져 끊임없이 氣血을 받고 보내지만, 이 八脈들은 그러한 正經과 달리 正經에서 흘러 넘치는 氣血을 받아들여 저장할 수만 있고 내보낼 수 없으므로 奇經이라고 하며, 따라서 邪氣를 받아도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붓고 열이 나므로 砭石으로 빼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奇經에 대한 정의는 『內經』에 없는 독특한 것이지만, 29難에서 奇經의 질병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는 『內經』과 비슷한 기조 안에서 부연함으로써 논리적인 乖離를 안고 있다.

“陽維維於陽, 陰維維於陰, 陰陽不能自相維,

則悵然失志, 溶溶不能自收持. 陽維爲病苦寒熱, 陰維爲病苦心痛. 陰蹻爲病, 陽緩而陰急. 陽蹻爲病, 陰緩而陽急. 衝之爲病, 逆氣而裏急. 督之爲病, 脊強而厥. 任之爲病, 其內苦結, 男子爲七疝, 女子爲瘕聚. 帶之爲病, 腹滿溶溶若坐水中. 此奇經八脈之爲病也.”³⁴⁾

任脈·衝脈·督脈에 대해서는 『內經』과 유사하고 陰維脈·陽維脈·帶脈·陰蹻脈·陽蹻脈 등에 대한 病機 설명에서는 『內經』보다 자세하거나 없는 내용을 논하고 있지만, 앞에서 논한 것처럼 이 經脈들의 병이 기혈을 내보낼 수 없는 특성 때문에 반드시 붓고 열이 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있다.

『難經』에서는 『內經』에 나오는 經脈 중 포괄적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8脈을 따로 뽑아 奇經八脈이라 명명하고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지만, 正經들을 能動的이고 主體性 있는 經脈으로 본 반면에 奇經들을 正經을 보조하는 受動的인 經脈들로 논하고 있는 것이다. 즉 『難經』은 『內經』에서 논하고 있는 이 八脈의 본질적인 整體性을 간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難經』에서는 『內經』에 나오는 十二正經을 제외한 여러 經脈 중 任脈·督脈·衝脈·帶脈·陰維脈·陽維脈·陰蹻脈·陽蹻脈 등을 하나의 經脈群으로 묶고 그 經路와 機能에 대한 설명을 보충함으로써, 正經과 비견되는 奇經을 定立, 經絡學說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八脈을 奇經으로 묶은 이유에 대하여 각 經脈의 독자적인 특성들을 간과함으로써 『內經』의 本旨를 거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經脈들의 실제 역할을 호도하고 있다. 즉 『內經』에서는 奇經도 正經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氣血을 교류하며, 그 교류하는 經脈들도 이 八脈에 한하지 않고 正經과 다른 맥들을 넘나들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任脈·督脈·衝脈·蹻脈 등에 설명에서, 이 經脈들

33) 凌耀星 主編, 上揭書, p.55.

34) 凌耀星 主編, 上揭書, pp.57~58.

이 精과 神, 氣血의 盛衰와 生殖作用, 意識과 身體活動 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하여 正經에 못지않은 주체적인 작용들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같은 奇經이라 할지라도, 任脈과 督脈, 帶脈과 衝脈, 陰陽蹻脈, 陰陽維脈의 기능은 각기 독특한 점이 있어 『難經』의 奇經에 대한 명칭으로서 묶는 것이 무리가 있다.

III. 比較考察

『難經』은 『內經』에서 논하고 있는 여러 經脈 중 중요한 經脈들을 따로 분류하여 한 經脈群으로 묶어서 奇經八脈이라는 명명을 하고, 여기에 속한 8脈에 대하여 기능적으로 統一性を 부여하려 하였다. 이러한 『難經』의 奇經八脈에 대한 논설은 후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內經』에서 논하고 있는 이 經脈들의 정체에 대하여 호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에 本章에서는 後世醫家들 특히 滑壽의 『十四經發揮』와 李時珍의 『奇經八脈考』를 중심으로 이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1) 生命의 門戶 任脈과 督脈

滑壽는 『內經』에서 단편적으로 논하여 상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논거를 찾을 수 없었던 任脈과 督脈의 관계에 대하여 根源과 循行路, 그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任與督，一源而二岐，督則由會陰而行背，任則由會陰而行腹。夫人身之有任督，猶天地之有子午也。人身之任督以背腹言，天地之子午以南北言，可以分，可以合者也。分之於以見陰陽之不雜，合之於以見渾淪之無間，一而二，二而一者也”³⁵⁾

任脈과 督脈은 根源이 같으며, 서로 행하여

35) 滑壽 原著, 上揭書, p.72.

분포하는 부위만 다른 한 經脈의 陰陽 兩儀에 지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그 관계를 같은 곳에서 根源하여 나누어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天地의 子午, 南北의 관계에 빗대므로써, 任脈과 督脈이 인체의 前後를 한 길로 통하게 하는 陰陽轉化의 중심이 되는 經脈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곧 ‘太極과 兩儀’의 하나이면서 둘인 관계나, ‘陰極則陽, 陽極則陰’이라는 陰陽의 互根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李時珍은 『奇經八脈考』에서 任脈과 督脈의 순행노선을 논하면서 任脈을 陰脈之海, 督脈을 陽脈之海라고 하여, 任脈과 督脈이 인체의 經脈들을 陰과 陽으로 分化하여 다스린다고 하고 있다. 또한 任脈과 督脈이 독자적으로 主治하고 있는 經穴들에 대하여 任脈은 27혈, 督脈은 31혈이라고 하여, 『內經』에서 각각 28개의 經穴이 있다고 한 것에 비하여 任脈은 1개를 줄이고 督脈은 3개를 늘려 말하고 있다.³⁶⁾ 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任脈과 督脈이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道家의 論說을 인용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任督二脈，人身之子午也。乃丹家陽火陰符升降之道，坎水離火交媾之鄉，……『大道三章直指』，云修丹之士，身中一竅，名曰玄牝，正在乾之下坤之上，……坎離交媾之地，在人身天地之正中，八脈九竅十二經十五絡聯繫，虛間一穴，空懸黍珠，醫書謂之任督二脈，此元氣之所由生，眞息之所由起，修丹之士，不明此竅，眞息不生，神化無基也，……人能通此二脈，則百脈皆通。”³⁷⁾

道家의 內丹 修練法에서 任脈과 督脈은 陽火와 陰精[陰符]이 오르고 내리는 길로서 인체

36) 李時珍, 本草綱目·奇經八脈考, pp.1765~1767. “任，爲陰脈之海，其脈起於中極之下，……環脗上，至下斷交，復出，分行循面，繫兩目下之中央，至承泣而終，凡二十七穴。……督，爲陽脈之海，其脈起於腎下胞中，至於少腹，乃下行於腰脊骨圍之中央，……至兌端，入斷交，與任脈足陽明交會而終，凡三十一穴。”

37) 李時珍, 上揭書, p.1767.

생명의 두 주체인 坎水[腎水]와 離火[心火]가 서로 交通하는 곳이며, 인체에 존재하는 모든 氣의 통로 즉 八脈과 九竅, 十二經脈, 十五絡脈이 이어지는 곳이라고 하였다. 李時珍은 道家의 수련 중에 느껴지는 이러한 감응을 토대로, 인체 생명의 根源之氣인 元氣가 생겨나는 곳이며 생명활동의 시작이자 끝인 참된 숨이 이루어지게 하는 구멍으로, 인간의 생명을 주재하는 神의 化生處라고 하였다. 任脈과 督脈은 신체에서 인간 생명의 근원인 元陰과 元陽이 활동할 수 있는 陰極과 陽極을 세우고 또 서로 고리처럼 陰陽 二氣를 轉化함으로써, 모든 陰脈과 陽脈을 주재하는 經脈의 海가 되어 인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氣의 활동을 주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生命意志의 주체인 神을 化生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後世醫家들은 『內經』을 토대로 점차 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논하기를, 인체 전후의 正中線을 從으로 가르면서 口脣部와 會陰部에서 서로 이어진다고 하여 陰陽의 統一과 分化를 任督脈을 통해 체현하고 있다. 또한 그 本質에 대해서도 『內經』에서 精과 神의 활동을 도우며 脊椎의 運動과 生殖器의 활동을 관장한다는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체 모든 經脈의 주체로서 元陰과 元陽의 흐름과 변화를 주재하고 神의 化生과 呼吸도 이러한 과정 중에 이룬다고 하여, 任脈과 督脈이 한 생명의 삶을 지키는 生命의 門戶임을 명백하게 밝혔다. 따라서 任脈과 督脈은 신체에 존재하는 모든 經脈의 根源으로서, 다른 六脈과 同級으로 논할 수 없는 으뜸이 되는 경맥으로,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

(2) 陰陽轉化를 調節하는 衝脈과 帶脈

衝脈에 대한 『十四經發揮』의 기술은 『內經』이나 『難經』에 비하여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나 『難經』에서 足陽明經과 함께 운행한다는 논의를 비판하고, 『內經』에서 논한 衝脈의 經穴

22개를 모두 足少陰經의 經穴로서 설정하여 足少陰經과 병행한다고 한 『內經』을 따르고 있다³⁸⁾. 帶脈에 대해서는 그 起始點과 순행노선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帶脈者, 起於脇下, 回身一周, …… 其脈氣所發, 在季脇下一寸八分[章門], 以其回身一周如帶也, 又與足少陽會於維道, 此帶脈所發, 凡四穴.”³⁹⁾

滑壽는 衝脈과 帶脈의 경로를 설명하면서 衝脈의 경로에 있는 經穴들이 足少陰經의 經穴임을 나타내고, 帶脈의 경로에 있는 經穴들은 足少陽經의 經穴임을 밝히고 있다. 少陰經과 少陽經은 모두 三陰三陽의 開闔樞 分化에서 樞機能을 담당하는 것들이다⁴⁰⁾.

李時珍은 衝脈의 경로에 대해서 『內經』과 『難經』의 기술을 종합하여 足少陰經·足陽明經과 모두 병행함을 논하고 있지만, 경과하는 經穴들은 『十四經發揮』와 마찬가지로 足少陰經의 經穴들로 나타내고 있으며, 24穴로 2穴을 추가하고 있다⁴¹⁾. 그러나 그 經穴들의 명칭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 衝脈을 經脈之海라 하고 또 血海라고 함으로써 『靈樞·海論』의 四海 중 血海⁴²⁾에 대하여 명료하게 지정하였다. 帶脈에 대해서는 『十四經發揮』보다 더 상세히 설명하고, 여기에 덧붙여 帶下라는 子宮의 病을 帶脈과 관련지음으로써 帶脈의 기능을 輔演하고 있다.

38) 滑壽, 上揭書, p.79. “…衝脈與督脈, 同起於會陰, 其在腹也, 行乎幽門, 通谷, 陰都, 石關, 商谷, 育俞, 中注, 四滿, 氣穴, 大赫, 橫骨, 凡二十二穴, 皆足少陰之分也. 然則衝脈, 並足少陰之經, 明矣.”

39) 滑壽, 上揭書, p.81.

40)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9.

41) 李時珍, 上揭書, pp.1759~1760. “衝爲經脈之海, 又曰血海, 其脈與任脈, 皆起於少腹之內胞中, 其浮而外者, 起於氣衝, 並足陽明少陰二經之間, 循復上行, …… 凡二十四穴.”

42) 『靈樞』에서는 岐伯이 上文에서는 ‘髓海, 血海, 氣海, 水穀之海’를 四海라 하고, 이들의 부위를 정할 때는 衝脈을 ‘十二經之海’라고 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帶脈者，起於季脇足厥陰之章門穴，同足少陽循帶脈穴，圍周一身，如束帶然，又與足少陽會於五樞維都，凡八穴。……楊氏，曰帶脈總束諸脈，使不妄行，如人束帶而前垂，故名，婦人惡露，隨帶脈而下，故謂之帶下”⁴³⁾

李時珍은 『十四經發揮』보다 帶脈이 경과하는 經穴을 4穴 추가하고 모두 足少陽經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帶脈이 諸 經脈을 約束하여 定立한다고 하고 있다. 또 帶下가 帶脈의 이상으로 발생한 病變이라고 하여 子宮과 帶脈이 기능적으로 相合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內經』에서 衝脈은 신체를 從行하면서 모든 陰經과 陽經을 滲灌하여 적셔주는 經脈으로 ‘經絡之海’가 된다고 하였다. 帶脈은 신체를 橫으로 둘러서 모든 經脈을 約束해주고 있다. 즉 衝脈은 모든 經脈을 包容하고 帶脈은 團束하고 있다. 또한 순행경로 상 衝脈은 陰經의 樞인 少陰經과 帶脈은 陽經의 樞인 少陽經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衝脈과 帶脈은 인체를 縱橫으로 가르는 經脈으로서 각기 正經의 少陰經, 少陽經과 짝을 맺고 있으니, 서로 表裏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經脈을 統合하는 陰維脈과 陽維脈

滑壽는 維脈의 경로에 대하여 경과하는 經穴들을 열거함으로써 그 순행노선을 명시하고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陽維，維於陽，其脈，起於諸陽之會，與陰維，皆維絡於身，若陽不能維於陽，則溶溶不能收持。其脈氣所發，別于金門，以陽交爲鄰，與手足太陽及躄脈，會于臑俞，與手足少陽會于天膠，又會于肩井，其在頭也，與足少陽會于陽白，上于本神及臨泣，上至正營，循于腦空，下至風池，其與督脈會，則在風府及瘡門，……此陰維脈氣所發，凡二十四穴。……陰維，維於陰，其脈起於諸陰之

交，陰若不能維於陰，則悵然失志，其脈氣所發者，陰維之鄰，名曰築室，與足太陰會於腹臑，大橫，又與足太陰厥陰會于府舍，期門，與任脈會于天突廉泉，……此陰維脈氣所發，凡十二穴。”⁴⁴⁾

維脈의 經穴은 『內經』과 『難經』에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각기 24穴, 12穴로 명기하고 있다. 또 陽維脈은 陽經들을 그물처럼 엮어매고 陰維脈은 陰經들을 그물처럼 엮어매서, 陰經과 陽經들이 각기 자기의 陰陽屬性에 따라 서로 有機的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락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維脈은 陰陽의 分化, 再分化에 따라 서로 나뉘어진 陰陽의 諸 經을 묶어줌으로써, 分化 속에 統一[陰陽의 離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李時珍의 維脈에 대한 설명은 『十四經發揮』를 넘지 않고 있다. 단지 經穴의 수에서 14穴, 32穴로 각기 2穴, 8穴을 추가하고 있다. 그 기능에 대해서는 營氣, 衛氣와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는 張元素의 설명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張潔古，曰衛爲陽主表，陽維受邪，爲病在表，故苦寒熱。營爲陰主裏，陰維受邪，爲病在裏，故心痛，陰陽相維，則營衛和諧矣。”⁴⁵⁾

陽維는 衛氣의 흐름을 조절하고 陰維는 營氣의 흐름을 조절하여, 陰經과 陽經들이 서로 막히지 않고 통할 수 있도록 연락해주는 작용한다고 본 것이다.

陰維脈과 陽維脈은 각기 陰部와 陽部에서 흐르는 인체의 모든 經脈들을 그 陰陽의 屬性에 따라 分割하여 連絡해서 한 經脈처럼 엮어줌으로써, 각 經脈들이 分化속에서 調和 즉 統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 중에 表와 裏에서 營氣와 衛氣의 원활한 흐름이 보장된다고 하여, 維脈이 營氣·衛氣의 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44) 滑壽, 上揭書, pp.79~80.

45) 李時珍, 上揭書, p.1751.

43) 李時珍, 上揭書, p.1769.

(4) 意識活動과 身體運動을 主管하는 陰蹻脈과 陽蹻脈

『內經』에서는 蹻脈 중 陽蹻脈의 순행경로는 간략히 서술한 반면에 陰蹻脈에 대해서는 그 대체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難經』에서는 兩蹻脈의 起始點과 終止點은 논하고 있지만 『內經』에서 상세히 논했던 頭部에서 蹻脈의 行路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두 책이 일치하는 것은 蹻脈이 經脈의 長短을 째 때 合算되는 것이며, 男女 性別에 따라 陰蹻脈과 陽蹻脈의 각기 經 또는 絡으로 整體를 따꾼다는 것이다.

『十四經發揮』에서는 蹻脈의 순행경로에 대해서 經過하는 會合經과 經穴들을 예시하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蹻脈은 둘 다 太陽經의 別絡으로 起始點은 足跟으로 같지만, 陽蹻脈은 太陽經을 따라 순행하여 太陽經으로 들어가고, 陰蹻脈은 少陰經을 따라 上行하여 太陽經과 相合한다고 하였다. 즉 蹻脈은 太陽經의 別絡으로서 少陰經과 太陽經을 연락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⁴⁶⁾. 그러나 『內經』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頭目에서 순행은 거의 생략하고 있다.

李時珍은 이 두 經脈의 순행노선에 대해서 陰蹻脈이 ‘눈 안구석에서 太陽經과 相合하고[屬目內眥], 陽蹻脈이 ‘風池에서 들어간다[入風池]’고 하여 頭部의 경로를 간략히 한 『十四經發揮』의 내용을 보충하여 『內經』의 本旨를 따

르고 있다.

“陰蹻者，足少陰之別脈，……屬目內眥，與手足太陽足陽明陽蹻五脈會於精明，而上行，凡八穴，……陽蹻者，足太陽之別脈，……復會任脈於承泣，至目內眥，與手足太陽足陽明陰蹻五脈會於精明穴，從精明上行，入髮際，下耳後，入風池而終，凡二十二穴。”⁴⁷⁾

李時珍은 滑壽와 달리 陽蹻脈을 足太陽經의 別脈, 陰蹻脈을 足少陰經의 別脈으로 확실히 구분함으로써, 蹻脈 陰陽 分化의 버리를 세우고 있다. 아울러 經穴 수를 陽蹻는 22穴, 陰蹻는 8穴이라고 하여, 『十四經發揮』보다 陽蹻는 6穴을 줄이고 陰蹻는 빠진 것을 보충하였다. 또한 蹻脈의 기능에 대해서 ‘蹻’字의 의미를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陽蹻，起於跟中，循外踝上行於身之左右，陰蹻起於跟中，循內踝上行於身之左右，所以使機關之蹻捷也。”⁴⁸⁾

蹻脈은 少陰經의 陰氣를 거두어들이고 太陽經의 陽氣를 發揚하는 氣의 陰陽轉化에 相應하여, 신체의 關節들을 內外로 屈伸시킴으로써 신체 運動을 주도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內經』에서는 의식활동의 覺醒과 昏睡를 주도하는 陽氣 즉 衛氣의 出入이 蹻脈에 달려 있다고 하였는데, 李時珍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체의 動物的인 운동도 蹻脈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여, 神志의 의식활동과 身體의 運動이 모두 蹻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蹻脈은 性別에 따라 經과 絡으로 자기의 整體를 달리함으로써 性別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뿐 아니라, 의식활동과 신체운동이라는 인간의 動物性을 가능하게 해주는 經脈이라고 할 수 있다.

46) 滑壽, 上揭書, pp.77~78. “陽蹻脈者，起於跟中，循外踝上行，入風池。……兩足蹻脈，本太陽之別，合於太陽，……蹻脈長八尺，所發之穴，生於申脈，以輔陽爲郄，本於僕參，與足少陰會於居膠，又與手陽明會於肩膠及巨骨，又與手足太陽陽維會於臑俞，與手足陽明會於地倉，又與手足陽明會於巨膠，又與任脈足陽明會於承泣，以上爲陽蹻脈之所發，凡二十八穴。……陰蹻脈者，亦起於跟中，循內踝上行，至咽喉，交貫衝脈，……蹻脈者，少陰之別，別於然谷之後，上內踝之上，直上循陰股入陰，上循胸裏，入缺盆，上出人迎之前，入鼻，屬目內眥，合於太陽，女子以爲經，男子以爲絡，……”

47) 李時珍, 上揭書, pp.1754~1756.

48) 李時珍, 上揭書, p.1749.

IV. 結 論

『內經』에서는 『難經』에서 奇經八脈이라는 한 經脈群으로 묶고 있는 經脈들에 대하여 모두 상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難經』에서 이 八脈을 正經에 빗대어 奇經으로 일괄하고, 또 正經을 能動的으로 활동을 하는 生命活動의 주체적인 經脈으로 놓고, 奇經을 正經의 活動 중에 剩餘로 생긴 氣血을 담은 그릇 [湖澤]이라는 受動的인 經脈으로 보는 견해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은 滑壽나 李時珍처럼 『難經』의 奇經八脈說을 추종하는 무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任脈과 督脈은 表裏가 되어 生命의 根源之氣인 先天 陰陽의 元氣를 소통시켜 주재하면서 生命意志인 神을 化生시켜, 인체에 존재하는 모든 經脈의 활동에 中心軸 역할을 하는 生命의 門戶와 같으니, 나머지 六脈과 동급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衝脈과 帶脈은 신체를 縱橫으로 가르고 두르면서 다른 經脈을 包容하고 묶음으로써 經脈들의 陰陽轉化를 조절하는 樞와 같은 역할을 한다. 陰維脈과 陽維脈은 서로 表裏가 되어 각기 陰經과 陽經을 그물처럼 엮어 주고, 또 신체의 表裏를 나누어 주재함으로써, 營氣와 衛氣가 소속 經脈에 따라 斷絶되지 않고 서로 圓滑하게 流通할 수 있도록 맺어준다. 陰蹻脈과 陽蹻脈은 五藏과 體表 사이에 陽氣의 放出과 陰氣의 收斂을 조절하고 신체 關節의 움직임을 高揚함으로써, 人間의 意識活動과 身體運動을 주재한다.

이로 본다면 奇經八脈은 正經보다 훨씬 능동적으로 生命의 整體性을 발휘하게 한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 參考文獻

1.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中醫古籍叢書·一中

社 影印.

2. 李時珍, 本草綱目·奇經八脈考, 高文社, 1962, 서울.
3.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6, 서울.
4.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서울.
5. 滑壽 原著, 校註古本十四經發揮, 旋風出版社, 中國.
6. 李東鎬·朴贊國, 奇經八脈 理論의 形成과 發展에 관한 醫史學的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學과 碩士學位論文, 1997, 서울.